

# 태풍이 핏줄 자리... 장병들, 사흘째 '복구 구슬땀'



육군31사단 장병들이 10일 전남 나주 금천면 일대 대민지원에 나서 태풍 링링의 여파로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고 있다.

부대 제공

육군, 10일에도 전국 피해지역에 장병 1800여 명 투입 대민지원

육군2작전사, 영호남·충청지역서 벼 세우기·낙과 수거 등 앞장 "지역민 상처 치유에 최선 다할 것"

태풍 링링이 핏줄고 간 상처를 복구해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국군 장병들의 피나는 노력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다.

육군은 지난 8~9일 장병 3400여 명을 태풍 피해 복구에 투입한 데 이어 10일에도 전국 각지의 피해 지역에 장병 1800여

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대민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육군2작전사령부(2작전사)는 10일 영호남·충청 지역의 농가에 31·32·35사단 장병 1350여 명을 투입해 벼 세우기, 낙과 수거, 축사 잔해물 제거 등을 진행했다.

이날 31사단의 경우 사단 예하 기동대와 김천일대대 장병 270여 명을 전남 나주 지역에 투입해 대민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전남 지역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 농업 분야 피해 면적만 6052헥타르에 달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나주 일대는 벼 대부분이 쓰러지는 큰 피해를 봤으나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민지원에 나선 기동대대 나병호(대

위) 중대장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지역주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재해재난 발생 시 선제적으로 지원해 지역민과 함께 하는 31사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사단 예하 배중순대대도 진도읍 금갑해수욕장에서 진도시와 경찰, 소방서 등 군·관이 힘을 모아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박호근(중령) 사단 군수참모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군의 핵심 가치 중 하나"라며 "지역주민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하면 언제든 지원해 주겠다"고 밝혔다. 사단은 11일에도 전남 여수와 구례, 순천, 화순, 담양, 광주광역시 서·남구 일대에 장병들을 투입해 강

풍으로 쓰러진 벼 세우기, 낙과 수거, 환경정화 등 피해 복구를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같은날 1·2·3·5·6·7·8군단과 수도군단, 육군부대들도 각각 부대 인근 피해 지역 일대에서 하우스 보수, 인삼밭 정리 등 다양한 대민지원 활동을 펼쳤다.

2작전사 관계자는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 복구가 지연되지 않도록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며 "한기위 명절을 앞두고 태풍으로 상처를 입은 지역민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상윤 기자 ksy0609@dema.mil.k

## 인권문화 조성 사명감 심고 전문지식 공유

공군, 인권감수성 향상 간담회  
감사원 김진국 감사위원 강연도

공군은 10일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각급 부대 인권담당 군 법무관·수사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참석자들에게 공군내 인권문화 조성의 사명감을 갖게 하고, 인권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진행된 교육에서는 감사원 김진국 감사위원의 전문적이면서 깊이 있는 강연이 펼쳐졌다.

김 위원은 군 법무관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겸손함, 신중함, 공감과 신뢰, 봉사과 헌신을 꼽으며 "법치행정과 인권이 존중되는 공군 문화 조성에 군 법무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 간에



10일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군 인권담당 군 법무관 및 수사 관계자 대상 강연·간담회 중 감사원 김진국 감사위원이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공군 제공

공군 인권 표준 교안 및 강의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 공군내 인권 문화 확산 방안, 수사 시 인권보호 방법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공군본부 전익수(대령) 법무실장은 "인권은 공군의 선

진병영생활을 움직이는 중요한 힘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공군내 인권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우 기자 lgiant61@dema.mil.kr

■ 편집=신재명 기자

전기안전관리자 화재 예방 실습형 교육  
육군1군수지원사령부

육군1군수지원사령부(1군지사)는 10일 부대별 전기안전관리자의 기본 직무 수행 능력 배양과 화재 예방 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형 소집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가한 전기안전관리자들은 전기 점검 장비 사용법, 전자제품별 접지 요령, 전선 누전 및 과부하 진단, 피뢰침 안전진단 등 총 6개 실습형 과제를 통해 직무 수행 능력을 한 단계 향상했다.

특히 전기안전대행업체로 선정된 대국E&C 대표를 초빙해 수준 높은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안전관리자들이 전기안전 관리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었다.

교육에 참가한 59탄약대대 반행주 상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부대의 전기안전사고를 더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교육을 주관한 1군지사 김정환(중령) 군수과장은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최첨단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파수꾼"이라며 "전기안전관리자의 능력 향상을 통해 부대원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 lgiant61@dema.mil.kr